

인 사 말

한국불교 지도자이자 각 종단의 사표로서 가람수호와 불법홍포, 그리고 회원 종단의 화합에도 진력을 다해주신 노력에 항상 감사드리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안부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종단마다의 대소사가 있고 또 함께 뜻을 모으는 불교계의 현안들이 있어 왔으나, 회원 종단 모두가 처한 위치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계시기에 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해의 노고를 함께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상의하는 자리입니다. 사무처가 그동안의 행정 경험속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점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단의 사안을 일일이 담아낼 수는 없지만, 여러 종단의 의견을 더해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종단 각각의 현안과 사정이 다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널리 알려야겠다는 원력과 신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불교계 본연의 수행정진과 해외 교류사업, 그리고 각종 구호사업과 종교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불교계 최고 지도자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논의하고, 여러 현안을 마주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의지해 온 결과라 여겨집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임을 양지해 주시고 공동의 목표에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회장 종단이었던 태고종이 내부 문제로 인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장단이 회원종단 여러분의 마음

을 잘 담아서 안부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해결과 종교단체의 위상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련의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종단 모두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노력들처럼 조속하게 다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단협의회의 위상이 커져갈수록 종교적 역할과 책무를 기대하는 사회적 시선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지혜롭게 대처해 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수승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각 종단마다의 주도적 사업들이 신도들의 축복속에서 성취되고, 이러한 성취가 다시 불자들과 국민의 행복으로 고르게 나누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0년 2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